

② 교제 장소는 78.3%가 제과점, 분식점, 오락장을 이용하고 17.3%가 다방 4.4%가 가정을 택하였다.

③ 이성문제에 대한 상담역으로 남자 76.4% 여자 67.5%가 친구, 선배를 택하였고 남자 15.2% 여자 27.5%가 부모 형제를 여자 2.5%가 교사를 택한 반면 남자는 상담역으로 교사를 택한 사람이 없었다.

비행청소년 발생과 가족환경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1984.

김소야자 · 황미희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Rudolf Moos가 개발한 가족환경척도(FES)를 이용하여 비행청소년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환경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조사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대상은 1982년 11월말부터 1983년 2월 말까지 비행군으로서 소년원에 입원한 원생의 가족 30가구, 대조군으로서는 서울시내 S동지역에 거주하는 44가구로써 가족구성원 총 321명이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과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의 가설인 “비행청소년이 있는가족의 환경에 대한 지각불일치점수가 비행청소년이 없는 일반가족의 환경에 대한지각불일치점수보다 높을 것이다.”는 비행가족의 불일치평균점수가 18.8598, 일반가족의 불일치평균점수가 14.8598로, 비행가족의 불일치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가설은 받아들여졌다.

2) 가족환경의 세차원 및 10개 항목별 비행군과 대조군의 불일치점수를 비교하고 T-test로 유의성을검증한 결과 비행군과 대조군의 불일치정도가 세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 < .05$), 10개 항목에 대한 불일치점수는 응집력, 표현력, 갈등, 성취지향성, 도덕-종교적강조, 그리고 조직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